

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파도 (계 15:2-4), Part 1

부제: “Wave Church의 부르심”

I. 성찬,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(이전 메시지)

- A. 우리는 공동체에서 성찬을 시행함으로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,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진리 앞에, 그리고 그분과 연합됨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그분께 정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. 우리는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과 동시에,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.

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(마 26:26-28)

II. 하나님의 보좌 앞,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예배

- A.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우리는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려는 순간의 하늘의 보좌의 장면을 엿볼 수 있다. 마지막 때의 대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봉 심판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8-9장, 11:15-19절로 이어지는 나팔 심판, 마지막 나팔이 (고전 15:51절) 울리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며 (마 24:30-31절), 이는 계시록 15장을 거쳐 계시록 16장의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며 마무리된다.

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,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(계 15:2-4)

- B. 우리는 계시록 15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핏박과 (계 13장),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적그리스도를 향한 심판들을 모두 목격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. 이들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, “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!” 마지막 때와 마찬가지로, 우리는 때로 눈 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환경에도 결국은

웹 페이지에서는 1페이지까지만 제공됩니다.